

한동대 사람들 美소담?



Why not change the world?

개교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동의 슬로건입니다. 본 수기집은 한동의 2세대가 여전히 같은 구호를 외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담아 내었습니다.

19학번 신입생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수기집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무전공 입학 후 어떻게 전공을 찾아가는지, 학부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만나보게 됩니다. 나아가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 사회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졸업생들도 만나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동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성장해 가는지를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동의 기독교 가치관과 전인교육(全人敎育)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01. **한동에 왜 오셨나요?** 4 19학번 새내기 이야기

정하늘 (학생부종합)	5
김주왕 (농어촌)	5
송주는 (해외학생)	6
정라엘 (SW인재)	6
김기은 (지역인재)	7

02. **무전공 무학과?!** 8 GLS 전공탐색 체험기

김범진 (Musical Theater 전공)	9
우성영 (전자공학심화전공)	10
윤다예 (US & International Law)	11
배의찬 (컴퓨터공학)	12
공보영 (경영학)	13

03. **학부생활이 궁금해?** 14 재학생이 들려주는 학부이야기

이예린 (경영경제학부/17학번)	15
양구원 (국제어문학부/17학번)	16

박은호 (법학부/16학번)	17
박세린 (상당심리사회복지학부/17학번)	18
최주연 (언론정보문화학부/15학번)	19
최지혜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17학번)	20
조승연 (기계제어공학부/15학번)	21
이찬송 (생명과학부/15학번)	22
유상재 (전산전자공학부/17학번)	23
전은우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14학번)	24
한효정 (ICT창업학부/16학번),	25
서주은 (창의융합교육원/13학번)	26
윤정우 (창의융합교육원/16학번)	27
이민혁 (창의융합교육원/14학번)	28
박예은 (창의융합교육원/14학번)	29

04.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30 졸업생이야기

장준익 (Kakao 경영기획팀)	31
손정은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32
손다열 (삼성SDS)	33
원보람 (변호사)	34
김 휘 (LG화학)	35
오범훈 (KEB 하나은행)	36
이유준 (극동방송 전산팀)	37
박상윤 (외국계 IT기업)	38

1. 한동에 왜 오셨나요?

19학번 새내기 이야기

“친구 따라 한동 왔어요”

- 정하늘 (부영여자고등학교) / 학생부종합전형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한동인들 덕분이예요”

- 송주은 (Ebenezer International School) / 해외학생전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였죠”

- 김주왕 (창선고등학교) / 농어촌학생전형

“난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국제화교육이 필요했어요”

- 김기은(모계고등학교) / 지역인재전형

“SW특성화와 한동 문화가 좋았어요”

- 정라엘(울산애니원고등학교) / 소프트웨어인재전형



"친구 따라 한동 왔어요"

정하늘

(부영여자고등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저는 친구가  G-IMPACT 캠프에 참여하면서 한동대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한동대학교 팬이 되버린 이 친구를 보고 한동대학교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가진 특별한 교육과 복수전공 시스템에 매료되어 버렸답니다.

저는 고교시절 내내 '인공장기 개발'이라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와 커리큘럼 등을 보며, 기계공학과 생명과학을 복수전공하기로 결정하며 제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목표로 한 인공장기 개발을 위해 창의적인 시스템 설계와 생체 친화성에 대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는 저에게 꼭 맞는 학교였어요. 또한 'STAR & WISE 연구지원사업' 같은 한동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은 제 가슴을 정말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제가 알아본 어느 학교들보다도 학생 중심의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통한 해외 봉사 등의 교류는 지식의 탐구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힘쓰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줄 것이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교육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한동인들 덕분이예요"

송주은

(Ebenezer
International School)
해외학생전형



약 3년 전, 저는 자존감도 낮고 목표도 뚜렷하지 않은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교를 방문한 한동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 선배님들은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으로 제가 갈피를 잡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년 오실 때마다 한동인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를 섬겨 주셨고, 밝은 모습으로 본인들 각자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분들과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분들처럼 여러 각국에서 모인 친구들을 사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입학하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섬겨주셨던 선배님들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한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후터였죠"

김주왕

(창선고등학교)
농어촌전형



고등학생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저의 길을 맡기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학사정관의 방문으로 한동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기독교적 가치관, 팀제도, 무감독 양심 시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자신의 삶에만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는 반면, 한동대학교의 '세상을 바꾸자' '배워서 남주자' 라는 슬로건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동의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 중 한사람이 되어 배운 것을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크리스천 복지가 되자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회복지사가 그냥 직업이 되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의 대학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싶어서 한동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난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국제화교육이 필요했어요"

김기은

(모계고등학교)
지역인재전형



저는 난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싶었던 저는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슬로건을 가진 한동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졸업생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동대로 가라는 조언을 해주셨기에 마음 속으로 한동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로가이드북을 읽어보았는데 각 학부의 슬로건 하나하나와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의 고백들이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받았던 사랑을 남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며 전문성을 키워서 특히 난민과 같은 소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꿈을 여섯 글자로 줄이면 '배워서 남주자' 였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제가 원하는 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SW특성화와 한동 문화가 좋았어요"

정라엘

(울산애니원고등학교)
소프트웨어인재전형



저는 페이스북의 한동대학교 입학 알리미를 통해 한동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한동대만의 문화들, 끈끈한 선후배간의 유대관계, 그리고 놀라운 수상실적 등을 보며 한동대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한동대가 소프트웨어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내활동을 해오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동대만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학기제, 해외 봉사활동 등을 생각하며 열심히 원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면접 전날에 경험하였던 찜질방 프로그램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재학생 선배들이 면접에 대한 팁들과 예비면접을 도와주며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12시가 넘어가는 늦은 밤, 또 면접 당일 날까지도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한동의 나눔 정신을 알 수 있었던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전하니 선배들이 더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이어지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셈이죠. 다른 학교 면접을 갔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미련없이 한동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한동대학교
입학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G-IMPACT 체험활동



입학사정관 고교방문



진로가이드북



Facebook 입학알리미



YOUTUBE 입학알리미 채널



2. 무전공 무학과?!

GLS 전공탐색 체험기

“저는 미국에 가서 1년간 뮤지컬 수업을 들을 예정이에요!”

- 18학번 김범진 / Musical Theater 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

“작은 소망을 이루어 준 고마운형, 누나들”

- 18학번 우성영 / 전자공학심화과정 (전산전자공학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찾아가기”

- 18학번 윤다예 / US & International Law (법학부)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운을 향하여”

- 18학번 배의찬 / 컴퓨터공학 (전산전자공학부)

“성적이 아니라, 비전으로 하는 전공 선택”

- 18학번 공보영 / 경영학 (경영경제학부)



"저는 미국에 가서 1년간 뮤지컬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범진 / 18학번

Musical Theater 전공
창의융합교육원-글로벌융합



한동대에는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관심있는 전공들이 있었지만, 뮤지컬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조금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Davidek 교수님을 통해 '글로벌융합전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전공을 만든다는 말이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 교수님은 매주 한 번 이상씩 면담을 해주시며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왜 뮤지컬 연출가가 되어야 하지?"라는 교수님의 질문은 제 꿈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였고, 뮤지컬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공설계 방법과 커리큘럼 구성, 나아가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충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융합전공으로 전공을 설계한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학부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100프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통해 미국에 가서 다음학기부터 1년간 뮤지컬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글로벌 융합전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외국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공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2학년부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융합전공은 저에게 큰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이라면, 글로벌융합전공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오셔서 함께 도전을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작은 소망을 이루어 준 고마운 형, 누나들"

우성영 / 18학번

전자공학심화전공
전산전자공학부



한동대학교에 오기 전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포항이라는 곳에서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전공은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친구들은 많이 사귄 수 있을까?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입생들이 이런 걱정을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의 새내기 친구들, 팀의 형, 누나들, 그리고 팀 교수님께서 잘 챙겨 주셨기 때문에 걱정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에 적응해가면서 본격적으로 전공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전공을 찾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리더십학부(GLS)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접하면서는 복수전공이나 다전공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어준 분들이 각 전공을 먼저 경험하고 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전공을 직접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형, 누나들의 경험을 토대로한 조언과 진심 어린 충고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전자공학심화과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저의 성격을 생각해볼 때, 혼자였다면 전공 선택이 더욱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전공탐색을 거쳐,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업적인 성과에서 더 나아가 함께할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저와 같이 한동대학교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많은 학부 중에서도 전산전자공학부를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찾기"

윤다예 / 18학번

US&International Law전공
법학부



한동대학교를 지원하고 한동인이 되어 지내면서 한동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한동대학교에서 1년간의 전공 탐색기간을 통해 다양한 수업을 자유롭게 들으며 저의 전공과 비전을 다시 한번 더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Handong Global University 라고 불리는 만큼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에 와서 처음 주어진 1년간의 전공 탐색기간 동안 관심 있는 수업과 필수 과목들을 성실히 들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 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다른 전공들도 좋았지만, UIL의 전공기초 수업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국제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약자를 돕고 싶단 마음이 생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US & International Law전공이 100%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범하게 한국에서 공부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영어수업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 중에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가 UN 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막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한동에 오기 전에는 취업, 돈과 같은 현실적인 것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난 한동의 선배님과 교수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파이팅!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을 향하여"

배의찬 / 18학번

컴퓨터공학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지난 1년간 저는 심리학, 도시건축, 경영학, 전산, 교육학 등 많은 수업을 들으며 저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고등학생 때는 막연했던 생각들이 점차 구체적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이 끝나가며 전공 선택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과 계열로 가야할지, 이과 계열을 선택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야 할지 갈등의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고등학생 때 문과 계열이었기 때문에, 심리와 경영, 그리고 교육이 비교적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것을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흥미와 관심이 있었던 컴퓨터를 더욱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고, 결국 전산전자공학부의 컴퓨터 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으로 이곳에 들어와서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선배님들과 공동체 속에서 매일매일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저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이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아기가 걸음마를 땔 때에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시작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 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에 대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한동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동을 향한 첫 걸음을 떼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이 아니라, 비전으로 하는 전공 선택"

공보영 / 18학번

경영학전공
경영경제학부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 선배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입문 강의를 들었고, 저의 적성에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활발하게 탐색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무전공 입학의 가장 큰 장점은,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에 성적, 인원 등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없이, 관심이 가는 과목들을 전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꿈을 꾸며 비전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전공은 경영경제학부의 경영학입니다. 입학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입니다. 경영학 입문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직 경영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 원리, 조직 실무 등을 익혀서 기업 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교수님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담해 주시며 각 사람의 비전에 맞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갓 새내기를 벗어난 터라 조심스럽지만, 경영경제학부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설렘과 믿음을 후배들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학부생활이 궁금해?!

재학생이 들려주는 학부 이야기

경영경제학부 17학번 이예린

“Why not? Change the world!”

국제어문학부 17학번 양구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법학부 16학번 박은호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17학번 박세린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언론정보문화학부 15학번 최주연

“기술보다 과정을, 사람을 통해 사랑을...”

공간환경시스템공학 17학번 최지혜

“이웃과 함께, 기도로 함께”

기계제어공학부 15학번 조승연

“미국에서 꿈 기계공학도의 꿈, 한동에서 이루다”

생명과학부 15학번 이찬송

“한동인의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전산전자공학부 17학번 유상재

“한동이 문과생을 공학도로 만드는 과정”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14학번 전은우

“한동은 우리의 Vision Designer!”

ICT창업학부 16학번 한효정

“통일을 대비하는 ICT기업가”

창의융합교육원 / 글로벌한국학 16학번 윤정우

“실패해도 괜찮아, 함께 도전하자”

창의융합교육원 / 수학통계 14학번 이민혁

“세상을 읽는 언어, 수학통계!”

창의융합교육원 / 학생설계융합 14학번 박예은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의 꿈”

창의융합교육원 / TEP 13학번 서주은

“내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이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예린 / 17학번

경영경제학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은 제가 고1부터 가졌던 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에, 직접 전공을 체험해보고 본인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곧바로 한동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이끄심 덕분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때는 저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홍보단에 들어가 여러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전공수업들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명확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시각디자인 이라는 2개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공 공부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힘이 들 때가 많았고 막연한 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전공의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경영학과 교수님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바쁘시지만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저의 그림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마케팅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한동은 막연한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마케팅’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한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양구원 / 17학번

국제지역학전공
국제어문학부



국제 정세를 보면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와, 시시각각 발생하는 변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이해하려는 학문이 “국제지역학”입니다. 하지만, 저희 한동대학교의 국제지역학은 타 대학과 분명히 다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히 국제 정세와 질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다스림을 찾으려고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는 나아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도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와 국제관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저희 학부의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따로’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저희 국제지역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RC제도나 팀제도 등 공동체 기반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한동대답게,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도 팀플이나 토의, 토론, 협력 연구 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무 지식과 영성을 겸비하신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배워가며 세계 속에서 “함께”의 가치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질그릇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쓰신다고 합니다. 국제지역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오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빚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재미로 시작한 법, 이제는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를 향하여"

박은호 / 16학번

한국법전공
법학부



저는 대단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법전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전공 탐색을 거쳐 처음으로 법률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우스운 고백이지만, 제가 처음 법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법학 입문' 과목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제 주위의 친구들은 '통일 한국의 법을 연구해보기 위해서', '산업 현장속에서 기업과 싸우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을 품고 법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비전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과목을 들 때마다 저 스스로의 비전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마친 지금은 '화평케 하는 자의 비전을 품고 교회 분쟁과 이단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서는 "만약 법을 6과목 공부한다면, 사실 우리는 7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6개의 법 전공과목과 1개의 인격성장과목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은 학업량이 많은 과목이기에, 무엇보다 참고 인내하며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면 법을 공부할 때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만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저처럼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또는 로스쿨에 진학하고 나서 비로소 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학에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사람 사랑!"

박세린 / 17학번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저는 한동대학교의 독특함에 이끌려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체험하려고 하며 제 나름의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갔다면 제가 절대 체험해보지 못했을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여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동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학교입니다.

저는 저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슬로건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인데요. 원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슬로건을 본 후, 그저 나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마음가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사회복지라는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저희에게 학문을 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며 다독여주시기도 하고 때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옆에 있는 동기들은 자신의 학업과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가기 위해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과 동기들을 통해 학부와 학교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서로를 아끼며 '배워서 남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길 원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오셔서 제가 느낀 감정과 깨달음들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사람을 통해 사랑으로.."

최주연 / 15학번

공연영상전공
언론정보문화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는 누군가에게 '한동' 답지 않은 곳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개성있고 주관이 뚜렷한 선배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아마 '유순하고 남을 배려하는 교회 언니 오빠'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정'이야말로 결과보다 과정을 배워가고,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학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연영상전공에서는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여 공연이나 영화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며 며칠씩 밤을 새곤 합니다. 꿈꿔왔던 일들이지만, 막상 마주해보니 실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막막함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순간도 오지만, 십여 명의 스태프들이 고생한 작품의 운명이 제 손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과 서로를 조정해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들과 교제하고 배우며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하게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늘 반짝이는 결과물을 동경하던 소녀였지만, 이제는 책임을 지고 모두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론정보문화학부에서 사랑 또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며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직면하곤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할 수 있었고,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영상과 언론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것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이웃과 함께, 기도로 함께"

최지혜 / 17학번

건설공학전공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안녕하세요. 이웃을 위한 공간환경설계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최지혜입니다.

저는 고등학생때부터 건축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1학년 때와는 달리, 전공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내가 과연 건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제2 전공인 시각디자인이나 다른 과로 전과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설계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격려해주며 응원해주었고, 이에 힘입어 다시 전공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하는 대상일 테지만, 한동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전공지식도 얻었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혼자 밤을 새워 설계를 했더라면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버티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한동인들께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변에 같은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역자들과 서로 의지하며, 남을 돕는 건축가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 많은 한동인, 그리고 예비 한동인 모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의 크기가 어떻든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한동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꿈 기계공학도의 꿈, 한동대에서 이루다"

조승연 / 15학번

기계공학전공
기계제어공학부



제가 처음 전공 선택을 하였을 때 모두들 의아해하거나 걱정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11살때부터 미국에서만 살았던 저에게 기계공학과 전자제어공학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 한번도 변하지 않고 수학과 과학만 좋아하며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망설임 없이 전공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문과, 이과, 해외 출신 관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동대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수학과 과학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튜터 세션, 스터디 그룹, 수학캠프, 기초선수과목 등을 통해 교수님들은 모든 학생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학교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의 특성상 끝없는 과제와 시험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공을 포기하거나 전과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많은 과제와 시험들을 거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귀한 인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4학년인 지금은 '배워서 남 주자'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재로 성장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서 늘 격려와 도움 주시는 교수님들과,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비전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동료들과 함께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어떠한 두려움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계를 구성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 여러분!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에서 그 첫 걸음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인의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찬송 / 15학번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부



저는 특별히 면접을 통하여 한동대학교에 처음 들어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의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한동인들의 따뜻함 속에서 치룬 면접이었기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생명과학부의 첫 수업이 끝난 직후를 잊지 못합니다. 이유는 수업이 끝났음에도 많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가던 교수님과 학생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명과학부에 있는 로직 디자이너스라는 학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부생이 대학원생 수준의 발표를 들으며 그 주제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며, 생명과학에 대한 열의를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제가 여기 온 것이 다시금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하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격주로 치르는 전공 시험과, 논문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저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실패도 맛보고 또 방법을 터득하기를 반복하면서 매 학기 발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에 온 순간부터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 열정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버텨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한동을 꿈꾸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동에서 문과생이 공학도가 되는 과정"

유상재 / 17학번

컴퓨터공학전공
전산전자공학부



고등학교 때 문과였고 심리학을 전공하려던 저는, 전공 탐색 기간인 1학년 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수업을 듣고서 컴퓨터공학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어려워했던 저에게 공학 전공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는 학생이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TA세션 등을 통해 공부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학 때 선배님들께서 진행하시는 ‘C언어 캠프’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인 C언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은 학교에서 선배님들께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캠프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100% 영어로 영상 처리에 관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위해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었고, 모두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를 다니며 이와 같은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이를 통해 한동대 학생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단지 “사랑하세요, 정직하세요”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준 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은 우리의 Vision Designer!"

전은우 / 14학번

제품디자인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학부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수많은 노력 끝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 입니다. 교수님들께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훌륭한 제품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늘 격려해 주십니다.

전공을 탐색하던 1학년 시절, 저는 입시 미술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제품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나 부모님들께서 입학 전에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자인 전공을 망설이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제품디자인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제품의 기능과 실용성까지 고려하여 제품의 효용가치를 총체적으로 높이는 것이 이곳에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제품의 이용 전부터 이용 후까지의 경험을 분석하는 법은 물론 미적인 부분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공부에 집중해서 빠져있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은 제게 단순히 학업 능력뿐 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디자인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뿐만 아니라 한동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비전을 찾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바꿔봅시다!

"통일을 대비하는 ICT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한효정 / 16학번

ICT창업전공
ICT창업학부



제 비전은 '통일을 준비하는 기업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mindset을 정비하고, ICT기술에 대해 공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수업은 실무, 현장 중심적입니다. 교수님들이 겪었던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이론만 있는 전공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제와 해결과정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팀프로젝트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때 같은 암기를 벗어나 체득하는 공부를 경험합니다. 또한 학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들, 창업캠프나 3D프린팅 캠프, 해외(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 청년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은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저는 중국 심천에서 소셜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창업가, 투자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우리 사업계획서를 피칭해보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위챗 페이를 보고 돌아와 핀테크 개발 관련 수업을 들으며 블록체인과 핀테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이 하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십니다.

이 학부는 단순히 4년 간의 배움을 넘어 삶의 비전을 고민하고 모든 과정에 배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사회의 문제들을 지나칠 수 없고, 지나치기 싫고, 바꾸어 나가고 싶은 한동인이자라면, ICT창업 전공을 추천합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역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내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이의 삶은 바꿀게요"

서주은 / 13학번

TEP과정
창의융합교육원



저는 한 때 꿈이 없어 방향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약사를 꿈꾸던 저는 생명과학을 선택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꾸어 왔던 꿈이기에,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여 휴학을 결정하였습니다.

휴학을 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드라마의 한 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이의 삶은 바꿀게요. 그리고 그건 그 아이에게 세상이 바뀌는 일일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울려서, 저는 한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꾸는 좋은 교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학교에 복학했을 때, 새로 TEP 기독 교사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뭉클 기쁜 마음으로 TEP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EP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TEP 친구들에게는 교육을 시작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 교육에 대해 배우는 6개의 과목을 통해 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기독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TEP 친구들과 매학기 만나고 교제하며, 기독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을 나누는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멘토가 되어주시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TEP의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서로 의지하고 나누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교생 실습을 하며, 교육은 자질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혹시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함께 사랑을 배우고 나눠가는 TEP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직접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밝게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함께 도전하자"

윤정우 / 16학번

글로벌한국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선택을 잘한 것은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년 동안 전공에 상관없이 수업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동에 오기 전까지, 제 진로 선택 기준은 “무엇을 잘 하는 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전공 기간동안 “무엇을 좋아하는 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심지어 싫어하고 못한다고 생각했던 분야도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도전을 많이 두려워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팀 교수님과 새내기 섬김이, 새내기, 팀 언니, 오빠들이 “실패해도 괜찮다”며 항상 격려를 해주었고, 저는 하나 하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혼자라면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내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조언해주는 한동의 교수님과 선배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전공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트랙과 글로벌 한국학 트랙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트랙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외국인은 TOPIK 6급이 있으면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희 전공은 교육학, 한국어 교육학 과목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관련된 과목도 수강합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트랙은 한국의 정치, 경제, 대중문화, 역사, 법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트랙입니다. 최근 한국의 K-POP, 드라마, 뷰티, IT, 새마을운동 등을 중심으로 한류(韓流) 열풍을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글로벌 한국학을 전공하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교사와 한국문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전문가가 되는 길! 글로벌 한국학 전공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상을 읽는 언어, 수학통계!"

이민혁 / 14학번

수학통계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은 그 책에 씌어 있는 언어를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다. 그 언어는 수학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수학의 중요성을 잘 설명한 말입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할 때도 수학과 통계는 필수적입니다. 현상을 진단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를 지망하는 저는 경제학과 더불어 수학통계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 상에서 수학통계학은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1전공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에게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하기 보다는 제 전공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수학적 사고능력과 통계적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 수학이나 통계를 복수전공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담없이 수학통계를 타 전공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한동대학교만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수학통계학과는 가장 최근에 생긴 전공이지만,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수학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교수님들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설명해주시고 이해할 때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세심함 덕분에 수학 전공 과목들을 따라가는데 어려움 보다는 즐거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 전공에서 수학통계를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알더라도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택을 망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대학교 수학통계학과에 오셔서 세상을 읽는 제 3의 언어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학생설계전공으로 실현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의 꿈"

박예은 / 14학번

산업공학과(학생설계전공)
창의융합교육원



저는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학생설계전공으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교수님의 연구 조교로 활동하면서 생긴 호기심 때문입니다. 2학년 때부터 약 3년간 활동하면서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덕분에 일찍부터 산업 공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전공하고 있었던 경영학과 경제학으로는 한계를 느꼈고, 산업공학에 좀더 집중하고자 경제학을 학생설계전공을 통해 '산업공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전공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 학생과 지도교수님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고, 내가 만든 전공이라는 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무시받지는 않을까, 같은 과 동기들 없이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산업공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공을 통해 정해진 전공의 한계에 벗어나 내가 진정 원하는 공부에 도전할 수 있어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산업공학' 전공을 통해 저의 1전공인 경영 분야의 문제를 공학적인 기술과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경영학과 산업공학을 융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한동만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4.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졸업생 이야기

“협력과 도전으로 글로벌기업에 더 가까이”

- 06학번 장준익(GE전공) - Kakao 경영기획팀

“한동에서의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이곳, 아프리카!”

- 12학번 손정은(영어) -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한동에서 배운 창의력과 공동체 정신으로”

- 12학번 손다열(컴공심화) - 삼성SD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동일issue를 가까이서 체험하기위해 군법무관에 지원
했어요”

- 10학번 원보람(법학) - 변호사 (군법무관)

“졸업생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학교는 없을겁니다”

- 11학번 김휘(생명과학) - LG화학 (2017 LG 글로벌 챌린저 최우수상 수상)

“심 놀랐게도 그 30명 안에 한동 출신이 저를 포함해 3명
이나 있었습니다”

- 06학번 오범훈(경제학) - KEB 하나은행

“문과 출신 공대생’, 융합형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 11학번 이유준(컴퓨터공학) - 극동방송 전산팀

“서울의 평범한 공대생에서 외국계IT기업으로 가기까지..”

- 14학번 박상윤(ICT창업) - 외국계IT기업



"형력과 도전으로 글로벌기업에 더 가까이"

장준익 / 06학번

경영경제학부 졸업생
Kakao 경영기획팀



현대사회는 AI, 로봇,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매일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동대에서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을 외치는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카오의 모빌리티 사업의 경영기획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로 나가는 수많은 선택지 중, 이곳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한동대에서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GE전공 교육을 받은 저와 친구들은 새로운 영역에 대해 개방적이고, 도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학과의 벽 없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법학, 기계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과 협업을 강조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학생들이 흥미로운 영역을 발견하면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그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셨습니다. 팀으로 협업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교수님과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그 역량을 더욱더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경영기획 직무는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며 재무적으로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다양한 사업내용에 대한 빠른 이해력과 논리력은 재학시절,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은 기술 창업, 기업 특채 입사, 전문대학원 입학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GE전공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과, 도전적인 삶의 자세와 관점, 곧 perspective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GE전공과 함께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후배들을 기대해 봅니다.



"한동에서의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이곳, 아프리카!"

손정은 / 12학번

국제어문학부 졸업생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어문학부 졸업생 손정은입니다. 저는 지금 르완다 루치로 라는 콩고 국경 지역에서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로 파견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동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에는 늘 정답이 없지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모으는 힘은 여러 국제 이슈들을 두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토론했던 국제어문수업들을 통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답을 외우기 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나누는 수업이 한동의 자랑이자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지혜'도 한동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지혜는 한동에서 마주치고 함께 공부했던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준 선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우미를 하며 만났던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지금 제가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동에서의 시간은 제 삶 곳곳에 녹아져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취업보다 더 큰,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는 한동대학교를 많은 신입생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동에서 배운 창의력과 공동체 정신으로"

손다열 / 12학번

전산전자공학부 졸업생
삼성SDS 소프트웨어 개발자



저는 2018년 8월 한동을 졸업하고 SW 개발자로서 삼성SDS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면접부터 부서에서의 실무까지, 한동에서 제가 배우고 경험했던 부분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입사 면접에서는 크게 전공 역량과 조직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심화를 전공을 하며 참여 위주의 수업과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면접에 편안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이후에 면접관으로부터, 제가 제시한 답안이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의 참신한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SW 개발자로 일하면서, 회사 일은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공동체를 위해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인정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며 함께 팀을 이뤄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동에서 4년 동안 팀 활동을 통해 삶으로 배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동대가 SW 중심대학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는데 실무와 밀접한 과목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SW중심교육과 함께 성장하게 될 후배들이 기대가 됩니다. 후배들이 전문성과 한동 특유의 공동체 정신을 배워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파이팅!



"통일issue를 가까이서 체험하기위해 군법무관에 지원했어요"

원보람 / 10학번

법학부 졸업생
변호사(군법무관)



저는 한동에서 법학과 국제지역학을 복수전공하면서 국제정치, 그리고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 통일을 대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단국가에 태어난 것, 한동에서 복수전공을 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관련 issue들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군대라는 생각이 들어 군법무관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관 면접 당시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교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었고, 다른 화려한 스펙도 없었기에 대학시절부터 해왔던 봉사활동 경력을 제출했습니다. 무척 긴장한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섰는데, 공군 법무실 장님께서 제가 대학시절부터 수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이력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며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동에서 배운 이웃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더욱 자랑스럽고 특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도, 그리고 군법무관으로 일하면서도 한동의 교수님들이 한분 한분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천으로써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꿈을 꾸곤 제가, 그분들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전문성을 키워갈 것입니다.

가장 앞서가야만 성공했다고 말해주는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 배려, 헌신을 알려준 곳은 한동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한동에서 만난 교수님, 선배님, 동기들을 떠올리며 버텨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한동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후배들도 한동에서 특별한 지식과 가치관을 배우고, 훗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졸업생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학교는 없을거예요"

김 휘 / 11학번

생명과학부 졸업생
LG화학 (2017 LG 글로벌 챌린저
최우수상 수상)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 학교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있으시다면 간단히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학교를 다니며 변리사에서 기계공학자로, 또 과학자에서 선교사로, 그리고 나중에는 스타트업 CEO로까지 변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최종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제도가 한동대의 무전공 입학 제도였습니다. 저는 이 무전공입학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단지 '입학'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 내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언제든지 꿈을 바꿀 수 있는 교육환경 등이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대학들이 뒤늦게 무전공 입학을 따라해도 한동대와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도보다 뛰어난 '팀모임'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매 학기마다 팀모임을 통해 인간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는 동역자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팀모임에서 만난 동역자들과 함께 제가 관심이 있던 과학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팀을 꾸려 LG에서 주최하는 LG글로벌 챌린저에 참여하게 되었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LG화학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사랑을 조금 평범한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들 학교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대학교도 졸업생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받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저처럼 항상 꿈을 꾸고 학교를 사랑하는 후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 놀랐게도 그 30명 안에 한동 출신이 저를 포함해 3명이나 있었습다"

오범훈 / 06학번

경영경제학부 졸업생
KEB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KEB하나은행에 재직중인 오범훈입니다. 졸업한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한동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마치 꿈만 같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 생활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팀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동에서 배운 이 공동체 정신과 배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해외 봉사단으로 1주일간 봉사 활동을 다녀오는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의 평판을 고려하여 전국 지점에서 단 30여명에게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참 놀랐게도 그 30명 안에 한동 출신이 저를 포함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회사생활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된 데에는 한동의 교육이 있었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많이 듣는 말은, '뭔가 좀 특별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취업해 일을 하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해도, 영업을 해도, 발표를 해도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4년의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공동체 의식이 직장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런 공동체 교육과 인성교육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수교양과 목인 전산 수업을 통해 경영지식과 전산지식을 연계하여 머리로만 알던 재무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던 경험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필수과목이라 어려워도 들어야 했지만 이렇게 실무에서 사용하게되니 훨씬 더 쉽게 일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동은 참 감사한 곳입니다. 한동에서의 배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한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동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꼭 그 꿈을 이루시고 한명의 한동인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자리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문과 출신 공대생', 융합형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이유준 / 11학번

전산전자공학부 졸업생
극동방송 전산팀



현재 저는 전산전자공학부를 졸업하여, 방송사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학을 전공하였지만, 고등학교 이과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 무전공 입학 시스템 덕분에 제 적성을 찾아, 공학을 전공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문과 출신인 저는 당시 인기있던 경영&경제학을 염두해 두고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경제학부 수업을 들으며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교양수업으로 들었던 'C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학 때 'C캠프', 2학기 때 '공학프로젝트입문' 수업을 들으며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교시절 생각지도 못했던 공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할 때였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엔지니어보다는, 새로운 IT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해당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 '문과 출신 공대생'은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있어 강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동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쉽게 접하며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는 '융합형 인재'로서 면접관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가끔 타대학에 입학한 저를 상상하곤 합니다. 아마 어느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무전공 입학'이 제가 공학도로 길을 걷게 해주었고, 융합형 인재로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또 개발자로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한동대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정답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서울의 평범한 공대생에서 외국계 IT기업으로 가기까지.."

박상윤 / 14학번

ICT창업학부 졸업생
외국계 IT기업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공대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6년 한동대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심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산업과 기술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CT창업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ICT창업학부에 있으면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해외 탐방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 직전에는 해외 경험과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OECD에서 반년 동안 인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대의 자유학기제를 통해 1학기를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이것은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이었던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첫 직장은 클라우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외국계 IT기업이 되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취업에 급급하고 성적에 얽매는 것보다 기회를 찾아 도전하였던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동대학교의 편입은, 그리고 ICT창업학부에서의 공부는 모두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이런 변화들을 보시며 지금은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해 갈 제 삶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망설임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pilogue

수기집을 마치며

한동대학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diversity)'입니다. 수기들을 통해 보셨듯이 한동의 구성원들은 출신도, 꿈도, 진로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뀌가는 이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고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Why not? Let's change the Worl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Honesty changes the world.
Integrity moves the world.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사야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 방법으로 · 하나님의 · 인재를 · 양성하는 · 하나님의 · 대학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입학처